

# 성년 맞아 새 출범한 '출판학회'

## 신임 회장에 尹炯斗씨...회원 보강·재정확보가 과제

그동안 출판학의 정립과 출판문화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해온 한국출판학회가 성년을 맞아 진용을 개편, 새 출범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출판학회는 지난 7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출판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20년간 학회를 이끌어온 안춘근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새 회장에 尹炯斗씨(53·범우사 대표), 부회장에 韓勝憲(55·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閔丙德(56·혜전전문대 교수)씨를 뽑았다. 앞으로 각 분과위원장과 이사진이 개편되면 '2대 체제'의 정비 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 學會誌의 꾸준한 발간 돋보여

출판학회가 창립된 것은 69년. 그해 3월 안춘근·盧琅煥·閔丙德·朴一俊·李重漢·黃秉國·梁文吉씨 등에 의해 당초엔 '한국출판연구회'란 동인회로 출발, 그해 6월 22일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출판학회로 출범했다. 이후 학회는 정기적으로 연구발표회와 세미나, 국제출판학술발표회를 갖는 한편 學會誌를 펴내는 등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학회지의 꾸준한 발간은 동 학회의 면목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가장 두드러진 업적으로 꼽힌다. 학회지는 초기엔 「出版學」이란 계간지로 玄峯社에서 간행되다가 82년부터는 「出版學研究」로 연1회 汎友社에서 간행돼 왔는데, 지금까지 총 29집이 나왔다.

72년부터 마련된 '한국출판학회賞' 시상도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의 하나. 매년 출판관계

분야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나 도서에 주어지는 이 상은 '학회' 차원의 대외 시상제도로서는 국내에 유일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지난 7월 1일 정기총회에서 시상된 올해 한국출판학회상은 저술·연구부문에 「出版物流通論」을 펴낸 윤형두씨, 기획·편집부문에 「남북커뮤니케이션 총서」 100권을 간행한 남남출판사의 趙相浩사장, 그리고 특별공로부문에 「출판저널」에 각각 주어졌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출판학회의 존재의의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국내 각 대학의 출판학관계 강좌를 회원들이 도맡다시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최초로 '출판학' 영역을 개척한 안춘근씨(중앙대 신방대학원)를 비롯, 閔丙德(혜전전문대 출판과)·金亮洙(·)·全泳杓(신구전문대 출판과)·吳慶鎬(광주경상대 출판광고과)씨 등이 전임교수로 활약하고 있고, 尹炯斗(중앙대·경희대 신방대학원)·韓勝憲(중앙대 신방대학원)·高德煥(혜전전문대)·金尙熏(·)·金義洛(인하대)·朴東海(대전전문대)·卞英姬(신구전문대)·南爽鍾(·)·鄭善英(건국대·한성대)씨와 출판인 李起雄(서울예전·열하당 대표)·李徹之(송의여전·종로서적 전문)·金榮允(서울예전·김형운편집회사 대표)씨 등이 출판학 관련 강좌에 정기적으로 출강하고 있다.

현재 출판학회 회원은 70여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吳鎭煥·彭元順·鄭大徹·李康洙(이상 한양대 신방과)·金鎭洪(외대 신방과)씨를 비롯, 河東鎬(공주사대 국어과)·尹炳泰(충남대 도서관학과)·黃秉國(숙대 중문과)·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출판학회는 지난 7월 1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8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改選, 진용을 재정비했다. 이날 제 12회 출판학회상 시상식도 아울러 베풀어졌다.

金基中(광주개방대 신방과)·李正春(중앙대 신방과)·鄭鳳九(숭실대 불문과)·文德守(홍익대 국문과)·宋寬植(단국대 영문과)·朴京夏(중앙대 사학과)·朴性鳳(경희대 사학과)·李相寶(국민대 국문과)·南潤秀(강원대 한문학과)씨 등 출판학 인접학과의 현직 교수들이 많다. 이밖에 특히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출신의 젊은 출판인 또는 출판연구자들이 대거 참여, 학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기세다.

### "분과활동·국제교류 강화할 터"

그러나 성년기를 맞아 '회원의 보강'문제가 새 집행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판의 現場學의 특성을 감안, 일선 현장의 전문편집인들에 대한 문호개방도 필요하거니와, 특히 커뮤니케이션 관계나 정보학관계 교수·전문가들의 적극 참여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학회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가동성·탄력성을

높이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학회는 기획편집·출판경영·잡지·출판미술·서지·저작권·국제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 분과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신임 尹炯斗회장의 방침이다. 또 일본출판학회·중국(上海)출판학회 등과의 상호 학술교류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모든 학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출판학회의 경우, 講談社 같은 대형 출판사·인쇄소들이 단체회원으로 참가, 상당한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를 서두름이 없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尹회장의 포부다.

어쨌든 성년기의 출판학회가 새 진용을 맞아 어떻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279·1323

유진  
AD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  
전산 시스템 가동

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전산사식·사진사자·편집·광고기획

TEL. 273-6486 FAX. 273-6173

서울특별시 중구 적동2가 69 (동명 BD3층)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 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

121-21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4-2번지 ☎ 338-6269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0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3,5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